

6

무한한
가능성을 만드는
HRD로부터

힘

2019 June Vol.39

정책동향

일터에서 배우는 일학습병행, 도입 5년만에 8만 명 참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현장동향

기업 재직자 맞춤형 온라인 훈련 고공행진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개발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융합 교육으로 취업의 지평을 넓혀라
청년들의 희망 직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청년일자리정책, 좋은 일자리 만들고 기업도 키우다
과정평가형 자격, 학교수업을 '현장중심'으로 바꿉니다

HRD통계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동향

혁신성장을 고려한 산업부문의 일자리 중장기 전망 연구
대학과 청년





車在馬前 | 거재마전

수레가 말 앞에 있다. 경험이 없는 말로 차를 끌게 하려면
먼저 다른 말이 끄는 수레 뒤에 매어 따라다니게 하여 훈련시켜야 한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경우에도 기초적인 일부터 훈련시킨 뒤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도록 해야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CONTENTS

정책동향

- 4 일터에서 배우는 일학습병행, 도입 5년만에 8만 명 참여
- 5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 6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 7 「2019 뿌리산업 백서」 발간

현장동향

- 8 기업 재직자 맞춤형 온라인 훈련 공공행진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포럼 개최
- 9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융합 교육으로 취업의 지평을 넓혀라
- 10 청년들의 희망 직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11 청년일자리정책, 좋은 일자리 만들고 기업도 키우다
과정평가형 자격, 학교수업을 '현장중심'으로 바꿨다
- 12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만듭니다
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 13 2019년도 NCS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 공고
올바른 훈련문화 공모전

HRD통계

- 14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동향

- 16 혁신성장을 고려한 산업부문의 일자리 중장기 전망 연구
대학과 청년
- 17 빅데이터 기반의 직업능력개발 연구동향 분석과 시사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6-2026 OVERVIEW

기관동향

- 18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19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over story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빅토르 위고〉

우리 국민이 꿈꾸는 미래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드는 힘, HRD로부터

통권 제39호

발행일 2019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3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디자인·인쇄 승일미디어그룹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힘 **HRD 동향** 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월간 **HRD 동향** 은 2016년 4월호(창간호)를 시작으로 2019년 5월호까지
통권 38호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더 유용한 콘텐츠, 더 알찬 정보로 구성하기 위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디자인 ▲테마, 특집에 관한 내용 ▲HRD칼럼 ▲정책/현장/연구동향 콘텐츠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주실 곳

• Email : keh4785@hrdkorea.or.kr
• 전화 : 052-714-8323

일터에서 배우는 일학습병행, 도입 5년 만에 8만 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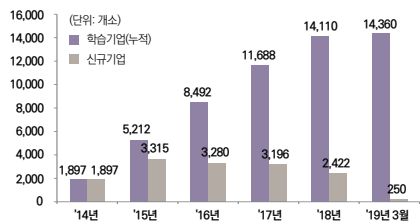
’14년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 제도의 운영 현황(’19. 3월 기준) (2019년 5월 9일,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
 -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임

■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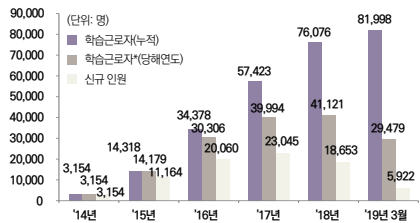
※ 출처: 참여 기업 설문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 ▶ 연도별 참여기업 현황: ’14년에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2~3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새로 참여하여 ’19년 3월까지 누적 14,360개의 기업이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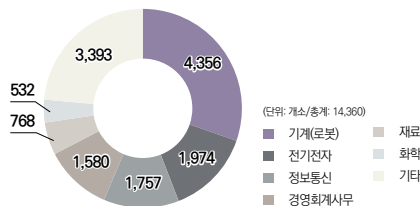
- ▶ 연도별 학습근로자 현황: ’19년 3월 까지 누적 81,998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에 참여

* 학습근로자(당해연도): 해당연도에 훈련을 받은 인원 (일학습병행은 훈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도별로 학습근로자의 중복인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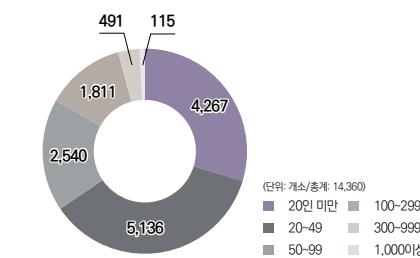


- ▶ 산업·지역별 학습기업 현황: 일학습병행 훈련 적용이 쉬운 기계(30.3%), 전기·전자(13.8%), 정보 통신(12.3%) 등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임

* 기타직종: 문화예술디자인(3.0%), 건설(2.8%), 섬유 의복(1.7%) 등 18개 직종



- ▶ 기업 규모별 학습기업 현황: 기계, 정보통신 분야 등 중소기업이 많은 직종의 참여가 높아 20~49인 기업 비중(35.8%)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많은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기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부터 충실히 지원할 예정
 -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확산해 나가고, 기업이 훈련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자율형 훈련 모형을 도입하여,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방침(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

일학습병행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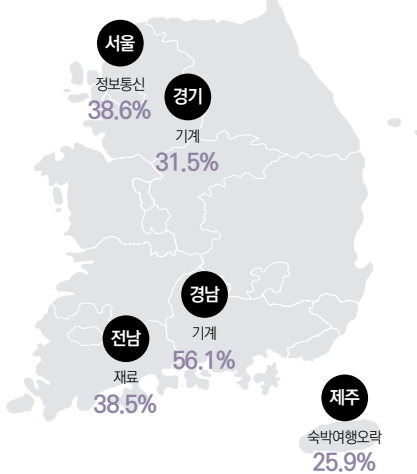
| 학습기업 수 (누적, 개소) |



| 학습근로자 수 (누적, 명) |



| 지역별 주요 참여 직종 |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성과확산대회 개최 (2019년 5월 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와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 인자위') 성과확산대회를 개최
 - 그간 산업별 인자위의 운영성과, 우수사례, 역할·기능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방향

① 산업별 인자위 기능 내실화

- 산업별 인자위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훈련 과정 통합 심사에 참여를 제도화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발굴할 때 ISC 참여 강화,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 주도
- 미래 유망 분야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늘려 조사·분석의 신뢰성 제고

② 산업·지역의 연계·협업 강화

- 지역 인자위와 함께 전직 지원 교육훈련 모형을 마련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
- 지역 인자위의 업종별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 및 업종 수요에 맞는 훈련 과정 운영을 지원

③ 산업별 인자위 대표성을 강화하고 산업계 주도 훈련 확대

- 산업별 인자위를 추가 설치하고, 산업별 인자위에 참여하지 않은 인접 분야의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산업 대표성을 강화
- 산업계 주도의 맞춤형 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기술 훈련을 하는 등 산업계 주도 훈련 활성화

④ 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인자위의 역할 확대

-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업종별 지역 고용 연결망(네트워크) 등 지역·업종 중심 고용대책 수립, 일자리 생태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

- 행사에 참석한 이재갑 장관은 “최근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교육·훈련 과정에 제대로만 반영된다면 기업과 노동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 “산업별 인자위가 출범 초기를 지나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생태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고용노동부도 산업계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단체(사업주 단체), 기업,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업계 대표기구 17개 산업별 인자위에 총 480개의 협회·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여 전체 산업 범위의 약 60%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 기준)를 대표하고 있음

| 17개 ISC |

정보기술·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상당
디자인·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음식서비스	건설
조선·해양	기계전자
부리	재료
화학	섬유제조·패션
전기·에너지·자원	전자
방송·통신기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바이오 빅데이터·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2019년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5월 22일(수) 충북 오송에서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

* 바이오헬스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

-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19.5.22.)

“우리가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기업과 인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 등 제약·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워 바이오헬스 선도 국가로의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 중 -

NIBRT: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2011년 설립, 아일랜드 및 전 세계 제약기업, 대학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응용연구, 임상시험, 인허가 등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내용

- 주요과제 중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부분 발췌

① 생산 전문인력: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 제약특성화대학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한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19, 복지부·산업부)

* 제약바이오업계는 AI융용·개발, 빅데이터 분석, R&D 및 임상시험, 품질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만 명 전문인력 수요 예상

- ▶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을 직접 도입,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제약 바이오 교육시스템 구축('20, 복지부)

-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20, 산업부)

*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 식약처 기준에 따른 특수한 공정(GMP)이 필요하나,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실습 시설 전무, 관련 중소 기업은 인력 양성 애로

- ▶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국가공인자격 지원('19~, 식약처)

* 개발부터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 전문가

② 핵심 연구인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19~, 복지부) 등을 통해 연구의사 양성체계 구축

- ▶ 실험실 연구에 핵심적인 박사후 과정자·연구교수 등 Staff Scientist 및 연구 지원인력 확대를 통해 바이오 R&D 고도화('20~, 과기부)

③ 4차 산업혁명 인재: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 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19~, 복지부)

* 연간 150명 내외 석박사급 인력을 해외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에 파견,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복귀 후 성과확산 지원

- ▶ 바이오데이터 관리기관(생명硯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20) 및 AI 대학원 확대 로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19~, 과기부)

「2019 뿌리산업 백서」 발간

뿌리산업 정책 정보와 산업 동향을 종합 수록 (2019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2일(수) '2019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등 뿌리 산업 관련 정책 현황과 기술·기업 동향, 통계 등을 수록한 「2019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

-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내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뿌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의 주요 수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기계, 조선, 전자 산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추가로 수록함

- 2019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중 '일자리 생태계'

- 뿌리기업 맞춤형 '스마트융합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19년) 및 신규인력 유입,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추진



인력 양성	기술혁신을 주도할 기능·기술인력 양성 확대	
	스마트융합 전문인력	수요변화와 스마트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중심 학위제 신설 *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1개교, '뿌리산업 특성화 대학원' 2개교 지정·운영
	중장년 취업패키지	중장년 인력을 대상으로 조합·지자체·고용부와 연계하여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중장년 인력양성 확대(22명→40명)
	우수 외국인력 활용 지원	외국인 양성대학 추가(1개, 누적 8개) 선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활용 지원
신규인력 유입	숙련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해 뿌리산업 분야 직업능력개발 과정(2년제 학위과정 51개, 전문기술과정 20개) 운영으로 숙련인력 양성 확대 -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이 고교 재학생(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 기술 전수로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
	3D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신규인력 유입 촉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	'19년 14개사를 확대 선정(누적 58개사)하고, 연계 인센티브(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강화 지속 확대
맞춤형 일자리 연계	인식개선	뿌리기업 명가 선정(누적 31개사), 각 분야(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일자리 등) 발전 유공자 선정(15명), 경기대회주간(11월) 개최 등
	우수 뿌리기업 중심으로 채용지원 확대	
	채용·홍보채널 확대	우수 뿌리기업(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명가 등) 중심 온라인 홍보, 채용 설명회(2회) 운영
SC 활성화	SC 활성화	
	뿌리업계 인력수급 현황 및 인적자원 개발 애로요인 파악, 6대 조합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사업기획 추진(1.5억 원)	

‘기업 재직자 맞춤형 온라인 훈련’ 고공행진

2019년 5월 1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지난 2015년부터 사내 교육훈련 콘텐츠와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해 온 ‘기업 맞춤형 온라인 훈련’의 참여 기업 및 재직자 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 맞춤형 온라인 훈련과정은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평생교육원과 기업이 교육 협약 체결을 통해서 연수가 진행되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협력업체 포함), 현대모비스 등 660여 개의 기업에서 56,0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기업 맞춤형 온라인 훈련은 첫 해인 2015년에 121개 기업, 10,852명의 재직자가 참여를 시작해 2018년에는 240개 기업에서 25,542명이 수료했다. 교육과정 수도 2015년 180개에서 2018년 320개로 대폭 확대됐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임경화 원장은 “기업(재직자) 맞춤형 온라인 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포럼 개최

2019년 5월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실·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실 등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안국 선임연구위원이 ‘4.0 시대 한국의 인적자원 수준과 활용’, 문한나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력개발’, 김미란 선임연구위원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김철희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장이 ‘노사협력적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미래 변화에 대비한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과 능력 개발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산학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업맞춤형 온라인 훈련 인기과정 10선 |

순위	분야	과정명
1	전기·전자	반도체 공정 기초
2	기계	기본공구사용법
3	기계	체결요소 설계
4	전기·전자	재미있게 배우는 기초전자회로
5	기계	AutoCAD를 활용한 기계도면(기본)
6	전기·전자	재미있게 배우는 전기회로
7	교육·자연·사회과학	오피스 해적단! 엑셀 2013을 정복하라
8	기타	영어회화 1
9	기계	모터기초이론
10	기계	PLC 기본(MELSEC)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2019년 6월 3일,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019년 하반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대학 또는 민간 선도 훈련기관을 공모한다.

2019년 하반기 공모에는 기존의 8개 훈련 분야 외에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인 클라우드 등으로 훈련 분야를 넓힐 계획이며, 훈련 기관과 과정은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훈련 특성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자율 선발한다.

이번 공모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7월 말에 훈련기관이 선정되면 8월경부터 훈련생 모집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훈련 기관 공모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 선정 절차 |

단계	심사내용	주관
단계	서면심사 · 사업계획서 심사(서면)	선정 심사단
2단계 심사 대상 확정: 최종 선정 과정 수의 약 2배수(영수제)		
▼		
단계	현장심사 · 현장심사 실시, 훈련비 지원 규모 등 검토	선정심사단
심사결과 확정: 과정 순위 및 심사의견 제출		
▼		
단계	최종심의 · 지원 과정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심의위원회

융합 교육으로 취업의 지평을 넓혀라

2019년 5월 17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융합형 미래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16일 이석행 이사장이 방문한 폴리텍 원주캠퍼스의 ‘의료공학과’는 ‘의학’과 ‘공학’이 어우러진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주캠퍼스의 의료공학과는 전자계열의 ICT 의료전자와 기계계열의 의료기기설계 두 직종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며, 특히, 최근 원주캠퍼스에 대졸자의 직업교육 참여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의료 기기설계 직종을 ‘하이테크 과정(첨단기술 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 하이테크 과정(첨단기술 과정): 과학력 청년층을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직종 특화과정

한편, 폴리텍 강릉캠퍼스도 융합 교육의 대표 주자이다. 강릉캠퍼스는 융합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공 간 경계를 뛰어넘는 전략적인 취업 교육을 위해 2013년부터 융합교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 외에 타 전공교과를 배울 수 있게 교과를 구성하고 융합교과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실습실을 조성하여 학생들은 실습실마다 지정된 지도교수로부터 수업을 받는다. 그 결과, 지난해 융합교과 운영학과 졸업생 166명 중 68명(41.0%)이 이중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폴리텍은 보다 체계적인 융합교육을 위해 ‘러닝팩토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이석행 이사장은 “러닝팩토리는 전통적인 칸막이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융·복합 학습이 가능한 실습지원센터로서, 지난해 인천캠퍼스에 처음 구축된 이후 금년에는 12개소로 늘린다”며 “앞으로도 러닝팩토리 기반의 융합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융합은 시대의 흐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



청년들의 희망 직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2019년 5월 3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대표 취업 누리집 워크넷에 2014년~2018년의 기간에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 구직자의 구직 건수 10,529,365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직종의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 연구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유망 직업들도 일부 구직 희망이 늘고 있다.

20대 이하 구직자들의 희망 직종을 보면 총무사무원, 경리사무원 등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종이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2014년 18등에서 2018년 14등으로 상승하였고, 물리 및 작업치료사는 65위에서 30위로 상승하였다. 웹개발자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유망 직업 중 하나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상승 추세이며, 애견인 증가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애완동물 미용사는 2014년 전체 121위에서 2018년 90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직종 중 하나인 제도사(캐드원)은 2014년 9위에서 2018년 15위로 하락하였고,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도 24위에서 73위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혁신 과제인 구인·구직 정보 분석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청년일자리정책, 좋은 일자리 만들고 기업도 키우다

2019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15일 (주)인라이플(대표: 한경훈)에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대책 이행 점검 및 현장 간담회 추진 계획」에 따른 첫 현장 점검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 동안의 정부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소개, ▲청년노동시장 현황 및 청년대책 평가, ▲사례 발표((주)인라이플, (주)에이치씨티), ▲자유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청년의 이야기가 제도 활용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비전있는 미래에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과정평가형 자격, 학교수업을 ‘현장중심’으로 바꿉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5월 2일(목), 자격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운영학교인 성일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성일정보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 정보처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에 응시한 21명 중 16명이 합격하여 약 76%의 높은 취득률을 보였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존 암기위주의 평가방식인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및 평가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과 4월 10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0.5% 수준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2022년에 10%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할 계획이며,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에 더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제도와 교육·훈련현장을 이어
직무능력에 알맞은 일자리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

| 20대 이하 구직자 희망직종 분포 순위(상위 10개) |

(단위: %)

순위	2014년		2018년	
	직종명	비중	직종명	비중
1위	총무사무원	7.18	총무사무원	5.83
2위	경리사무원	5.32	경리사무원	4.88
3위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4.54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4.53
4위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3.65	재무 및 회계사무원	3.76
5위	재무 및 회계사무원	3.0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3.18
6위	간호조무사	2.38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56
7위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16	간호조무사	2.42
8위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0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32
9위	캐드원	1.96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1.98
10위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79	사회복지사	1.97

| 30대 구직자 희망직종 분포 순위(상위 10개) |

(단위: %)

순위	2014년		2018년	
	직종명	비중	직종명	비중
1위	경리사무원	8.97	경리사무원	7.89
2위	총무사무원	6.64	총무사무원	5.64
3위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3.52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4.07
4위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2.82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91
5위	간호조무사	2.82	간호조무사	2.71
6위	재무 및 회계사무원	2.55	재무 및 회계사무원	2.46
7위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00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2.39
8위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99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1.89
9위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1.78	보육교사	1.80
10위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1.61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66

* 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개정 이전 세분류(전체 445개) 기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만듭니다

2019년 5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에서는 NCS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통용되는 국가기술자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월 23일(목), 용산 공업고에서 용접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의 대상자를 조선, 발전, 화학업체 등 현장에서 용접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구성하였고, 평가자를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폴리텍대학, 산업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 시험문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완성도를 높였다.

'18년 NCS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개선된 용접기능장 자격시험은 현재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이프용접이 실기시험 문제로 구현되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이번 신규과제는 현장성 및 활용성 높은 과제로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혁 기술자격출제실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성이 높은 문제로 수험자 및 자격취득자가 신뢰할 수 있고, 통용성과 현장성이 높은 문제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프 용접

위보기 자세 용접

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2019년 5월 8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6월 18일(화)까지 전국의 직업 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9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8년에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 정보 제공업체이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 기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내려 받기 가능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고,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우수 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019년도 NCS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 공고

2019년 5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NCS 기반의 우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훈련제도의 체계적 개편에 기여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2019년도 NCS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분야는 ▲훈련과정 분야와 ▲과정평가형 자격 분야로 구분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발표심사, 결선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총 15개 포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9일 '직업능력의 달' 행사에서 개최되며, 우수 훈련과정의 수상자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관리' 항목에서 일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RD 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 CQ-Net 홈페이지(www.cq-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진대회 공고

‘올바른 훈련문화’ 공모전

2019년 5월 13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국비지원 직업훈련 관련 부정행위 등 잘못된 관행 근절을 목적으로 '2019년 올바른 훈련문화 만들기 콘텐츠(영상·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12일까지 온라인(www.ksqacontest.com)을 통해 접수받는다. 심사를 통해 총 6점을 시상하며, 총 700만 원의 상금(영상 부문, 포스터 부문 각각 최우수상 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4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이 증정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약속해요, 올바르게 품격 있는 직업훈련'이다. ▲부정행위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 유발, ▲국비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의 바람직한 인식개선 유도, ▲올바른 훈련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담으면 된다.

이문수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부정훈련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훈련시장 조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안내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연구자: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 청년패널조사(YP2007): 2007년 당시 만 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 2017년까지 총 11회에 걸친 추적조사가 진행됨
- 연구목적: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기대효과: 청년패널조사 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될 경우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 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career path)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청년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현황파악은 물론 교육·훈련·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 응답자 특성: 원본본 응답자 7,003명, 추가표본 2,980명(유형: 중·고등학생/대학(원)생/취업자/미취업자)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8년 12월 시점의 자료로, 추가적인 자료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통해 통계수치가 바뀔 수 있음. 아래의 자료는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함.

직업교육훈련(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 여부 조사)

표 1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중 추이(통합표본): 2013~2017년									
(단위: 명, %,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원패널	추가패널	원패널	추가패널	원패널 (A)	추가패널 (B)	통합패널 (A+B)
전체 (표본수)	10,830,308 (7,092)	10,833,975 (7,055)	10,833,071 (7,035)	5,291,823 (3,516)	10,920,105 (7,022)	5,372,994 (3,142)	10,938,313 (7,003)	5,403,477 (2,980)	16,341,790 (9,983)
경험	1.8	1.9	1.5	0.8	1.7	0.4	1.7	1.1	1.5
평균개수	1.39	1.48	1.40	1.13	1.47	1.05	1.41	1.05	1.33
무경험	98.2	98.1	98.5	99.2	98.3	99.6	98.3	98.9	98.5

주: 1.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지면의 한계 상 2008~2012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년패널2007 10차(2016)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p.133.에서 확인 가능함(2007년 1차 조사는 현재까지 받은 경험을 모두 조사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 '17년 현재 원패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7%가, 추가패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1%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통합패널을 기준으로 '17년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1.5%로 나타남

표 2 성별 직업교육훈련 목적(통합표본): 2017년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표본수)	311,934 (170)	162,129 (80)	149,804 (90)
창업을 위해	3.5	1.0	6.2
(재)취업을 위해	22.3	24.0	20.5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51.9	51.0	52.9
경력개발을 위해	7.4	8.4	6.2
자격증 취득을 위해	12.4	15.3	9.3
기타	2.5	0.4	4.8

주: 1.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직업교육훈련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표 3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목적(통합표본): 2017년					
(단위: 명, %)					
	전체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석사졸 이상
전체 (표본수)	311,934 (170)	54,168 (30)	34,011 (20)	208,290 (112)	15,465 (8)
창업을 위해	3.5	2.3	12.0	2.6	0.0
(재)취업을 위해	22.3	43.8	17.4	19.2	0.0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51.9	29.0	61.2	54.8	73.3
경력개발을 위해	7.4	1.6	0.0	8.6	26.7
자격증 취득을 위해	12.4	23.3	9.4	11.0	0.0
기타	2.5	0.0	0.0	3.8	0.0

주: 1.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직업교육훈련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표 4 성별 향후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통합표본): 2017년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표본수)	16,341,790 (9,983)	8,585,225 (4,720)	7,756,565 (5,263)
희망함	3.8	2.9	4.9
희망하지 않음	96.2	97.1	95.1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 향후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8%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희망 비율이 4.9%로 남성(2.9%) 보다 2.0%p 높게 나타남
- 향후 직업교육훈련 희망 분야(1순위) 조사 결과 '컴퓨터 분야(18.9%)', '서비스 분야(10.3%)', '식품 분야(8.9%)' 순으로 나타남

표 5 성별 직업교육훈련 무경험 이유(통합표본): 2017년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표본수)	16,098,879 (9,848)	8,455,021 (4,652)	7,643,858 (5,196)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알지 못함	10.8	10.5	11.2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 없음	12.7	13.0	12.4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64.4	64.9	63.9
실제 탐색해 볼 생각 안함	10.5	10.1	10.9
직장내 분위기 조성 미흡	1.1	0.9	1.2
기타	0.5	0.6	0.5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표 6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무경험 이유(통합표본): 2017년					
(단위: 명, %)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이상
전체 (표본수)	16,098,879 (9,848)	7,040,158 (4,162)	2,981,745 (1,825)	5,568,383 (3,558)	508,594 (303)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함	10.8	14.3	8.4	8.3	5.2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 없음	12.7	11.5	12.5	13.9	16.7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64.4	63.1	66.0	65.5	62.3
실제 탐색해 볼 생각 안함	10.5	10.0	11.1	10.5	13.9
직장내 분위기 조성 미흡	1.1	0.7	1.5	1.3	1.3
기타	0.5	0.5	0.6	0.5	0.7

주: 무응답(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첫 일자리 특성(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의 특성과 지속기간에 대하여 분석)

표 7 첫 일자리의 직업 분포(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단위: %)						
	전체	성별		학력별		
		남성	여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기술/기능직종사자	16.8	28.7	6.8	19.2	16.2	15.5
경영/금융/무역사무직	31.5	24.6	37.4	26.8	28.7	36.3
교육/법률관련직	9.7	5.4	13.2	2.6	5.0	17.0
의료/사회복지/종교관련직	9.7	3.0	15.4	4.0	17.9	9.3
문화/예술/스포츠관련직	4.5	3.4	5.4	2.8	4.8	5.5
서비스관련직	10.1	11.9	8.5	16.3	12.1	4.8
영업/판매직	11.4	12.7	10.3	18.5	10.6	7.0
단순노무직	4.1	6.1	2.4	7.2	3.4	2.2
기타	2.3	4.2	0.6	2.7	1.4	2.5

주: 1. 기술기능직 종사자: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2.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3. 교육법률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4. 의료보건복지종교관련직: 의료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5. 서비스관련직: 운전 및 운송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6. 단순노무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7. 기타: 농림어업관련직, 군인, 미분류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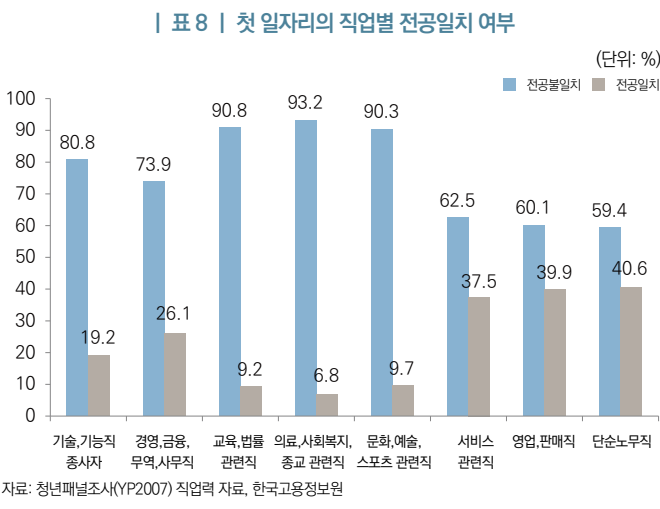


표 9 첫 일자리의 직업에 따른 지속기간 분포						
(단위: 명, %, 개월)						
	표본	1년 미만	1~2년 미만	2~4년 미만	4년 이상	평균 (개월)
기술/기능직종사자	1,290	28.9	21.2	23.9	26.0	35
경영/금융/무역사무직	2,420	29.9	21.4	23.0	25.7	35
교육/법률관련직	742	27.5	23.0	24.4	25.1	35
의료/사회복지/종교관련직	745	23.5	25.0	27.2	24.3	35
문화/예술/스포츠관련직	344	41.9	27.9	18.9	11.3	22
서비스관련직	773	42.8	23.8	21.2	12.2	22
영업/판매직	877	35.2	25.3	19.4	20.1	29
단순노무직	313	41.5	26.2	16.6	15.7	25
기타	175	24.6	21.7	25.1	28.6	37

자료: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직업에 따른 첫 일자리 지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기술/기능직종사자, 경영/금융/무역사무직, 교육/법률관련직, 의료/사회복지/종교관련직이 35개월로 평균 지속기간이 길었음
- 첫 일자리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는 그 외 거주자에 비해 이탈할 가능성이 낮음

혁신성장을 고려한 산업부문의 일자리 중장기 전망 연구

산업연구원, 2018 | 연구자 : 이진면, 김재진, 이용호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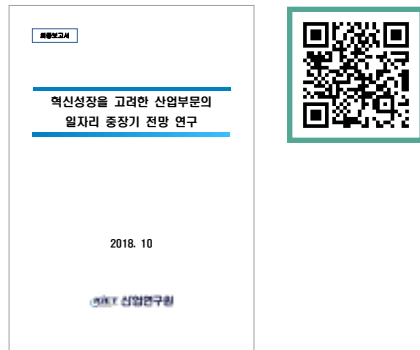
-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및 일자리 5년 로드맵과 관련해서 혁신성장의 위치와 주요 역할 및 주요국의 일자리 정책을 검토

■ 주요내용

- 혁신성장전략 개요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전망대상 산업의 범위 설정과 산업별 성장구조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특성 파악
- 일자리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망에 대한 일반적 방법론 및 주요국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
- 혁신성장의 시나리오와 전제조건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전망결과!

- ▶ '16년 대비 '22년의 정책 대상 산업의 전체 인력수요는 기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6년간 30만 3천 명(연평균 1.0%), 혁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46만 3천 명(연평균 1.5%)이 증가할 전망
- ▶ 제조업 하위 세부 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전자부품, 정밀기기에서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대학과 청년 -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말하는 대학과 청년의 위기와 비전 -

류장수, 2019

■ 목적

- 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장수 교수(부경대 경제학과)와의 대담과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며, 우리의 대학과 청년들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성 제시

■ 주요내용

-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평가와 재정 악화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 투자는 늘리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
-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위한 제언: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대학생 채용목표제, 지역활당제의 필요성 언급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 대안 제시



빅데이터 기반의 직업능력개발 연구동향 분석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 연구자: 오호영, 정지운, 홍광표, 이은혜, 조영민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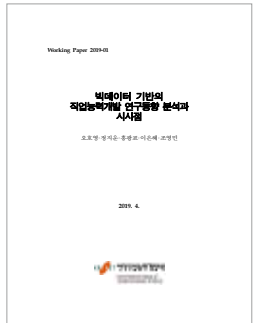
- 직능원이 개원 이래 20년간 수행한 연구보고서와 직업능력개발 분야 대표적인 학술지와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방향성 정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 영문 초록과 학술지 6종에 게재된 논문의 영문 초록을 분석자료로 활용
- * 시계열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998-2018년도까지 발간된 기본보고서와 1990-2018년 기간 중에 발간된 국내 학술지의 논문 초록을 수집,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복잡한 국문 초록 대신 영문 초록을 분석대상으로 함

- ** 학술지는 『교육공학연구』, 『직업교육연구』, 『역량과 성과관리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한국 노동경제논집』, 『직업능력 개발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 위 분석자료를 통해 ①키워드 빈도분석, ②의미연결망 분석, ③Topic Modeling 결과를 수록



| 교육훈련·고용 연구분야 워드 클라우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6-2026 OVERVIEW

한국고용정보원, 2019 | 연구자: 이시균, 방글, 김진영

■ 목적

-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표나 그래프 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산가능인구: '16년 43,606천 명에서 '26년 45,600천 명으로 증가 전망
- 경제활동인구: '16년 27,418천 명에서 '26년 29,218천 명으로 증가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16년 62.9%에서 '21년 64.3%까지 높아지다가 '26년 64.1%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취업자수: '16년 26,409천 명에서 '26년 28,190천 명으로 전망, 전체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추정
- 고용률: '16년 60.6%에서 '21년 61.9%까지 증가하고, '26년에 61.8%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2019년 05~06월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운영 학교 방문(5.2)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계획 발표(5.6)
- 일학습병행 현황 분석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5.8)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성과확산대회 개최(5.9)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5.31)
- 2019년(2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기관 모집공고(6.3~6.21)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 개최(6.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6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알림(6.1)
- 2019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컨설팅 기관 모집(~6.12)
- 2019년도 과정평가형자격 자격취득자 우수사례 모집(~6.21)
- 제6차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 개최(6.28, 바비영2)
- 2019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단지형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 11월, 상시 신청)
- 2019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신청(7.1~7.31)
- 2020년도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공동훈련센터 공모(~7.2)



- 2019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6.5,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2019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위원 워크숍 개최(6월 중)
- 2019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VR체험부스 운영(6.25, SETEC)
- 제91회 이사회 개최(6.28, 서울)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6.10)
- 2019년도 하반기 교수초빙 면접심사(6.19)
- 2019년도 홍보 담당자 워크숍(6.20~21)
- 제10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 개막(6.26, 예정)
- 2019년 창의혁신 테마형 공모제안 경진대회(6월 말 예정)



- 학생통합지원센터 개관식(5.8)
- 학부모 초청의 날 행사 개최(5.9)
- 코리아텍 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5.10)
-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참가(5.16)
- 대학 법인 이사회 개최(5.24)
- 한국중부발전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6.12)
- 2019년 후기 고숙련마이스터과정 신입생 모집(6월 중)
- 2019년 하계 국외 기술교육봉사 발대식(6.27)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최종결과발표(6월 2주)
- 상반기 신규기관 2단계 역량(현장)평가 이의신청 결과 통보(6.11 예정)
- 2019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및 특화심사 결과공고(6.28 예정)
- '19년 2차 실업자 원격훈련 심사 최종 결과 발표(6.7)
- '19년 3차 실업자 원격훈련 심사접수(6.10~17)
- '19년 4차 유효기간 자동연장심사 최종결과 발표(6.14)
- '19년도 훈련이수자평가 6차 평가신청(6.3~10)



- 대국민 연구성과 합동 보고회(공동 주최)(5.8)
- 국가 - 지역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 1차 워크숍(5.15)
-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공동 주최)(5.16)
-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5.21)
- 성인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관계자 워크숍(5.23~24)
- 2019년 고교학점제 정책연구 합동 워크숍(공동 주최)(5.31)
- 일학습병행 성과 확산을 위한 2019년 제1차 세미나(6.25)
- 제72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6.28)
- 2019년 제1차 민간자격관리자 연수(6.28)



타 훈련생 방해는 안돼요!

수강 매너를 지켜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시설 및 재료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훈련 시설 및 재료 관리에 소홀할 경우 훈련생의 기술 숙련도 도달이 어려워져요.



수강 매너를 준수해주세요!

훈련 분위기가 흐려져 타 훈련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허위·조작 서류 제출 안돼요!

평가자료 조작이 발견될 경우 훈련기관에 이수자평가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요.



훈련생 대리출석 안돼요!

결석을 자주 하면 훈련 적응이 힘들어져 중도 탈락할 위험이 높아져요.



과대·과장광고 안돼요!

인정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해요.



훈련내용 임의변경 안돼요!

인정받은 훈련내용 및 훈련수준을 지켜주세요.



수강생에게 언어폭력은 안돼요!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아야 해요.



강의시간을 지켜주세요!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부정훈련 신고, 올바른 참견입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www.ksqa.or.kr (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부정비리신고)

* 본 포스터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한 '2018년 올바른 훈련문화 만들기 공모전'의 수상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포스터 디자인-김효진·최은아, 우수상 / 신고슬로건-윤보영, 최우수상).